

승인은 그 후 호남의 용담에 자리잡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에게 어느날 덕산이라는 거만한 학승이 찾아왔다.

덕산은 지금의 사천지방인 축(蜀) 땅 사람이다. 어려서 출가하여 계율을 공부하다 철학적 측면에 깊이 침잠했다. 특히 <금강경>에 밝아 주변에서는 그를 주금강(周金剛)이라고 불렀다.

당시 강서와 호남에서는 육조 이래의 선이 활발히 개화하고 있었는데, 덕산은 경성 성불이나 즉심즉불이니 하는 선의 표어에 불같이 화를 냈다. "아니 이런 무지한 것들이 있다. 경에 의하면 천겁에 걸쳐 위의(威儀)를 배우고, 만겁에 걸쳐 세행(細行)을 닦아야 성불할지 말지라고 했는데... 범부의 마음이 곧 부처리니 이런 망발이 어디 있겠. 내 내려가서 혼쫓을 내주어야겠다."

그는 평생의 득의(得意)인 <금강경> 주석을 등에 지고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며칠이 지나 호남의 예주라는 곳에 이르렀다. 해가 중천이어서 어디 짐이나 해야겠다고 주위를 둘러 보니 한 노파가 떡이며 만두를 팔고 있었다. 노파는 그런데 물건을 팔 생각은 없고 덕산에게 듣길없는 질문을 던졌다. "등에 지고 있는게 무엇이요?" 덕산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금강경(야경)의 연구서요." "그래요 그럼 어디 물어봅시다."

한형조 무문관 탐방

46

용담의 촛불 ②

자리를 잠시 차지했다가 다시 과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염염상속(念念相續)밖에 없어 보인다. 불교는 말한다. 불변하는 것, 영속하는 것, 진정 자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다섯 더미(五蘊)가 가상으로 얽어 놓은 자아라는 환각(maya), 그리고 그 자아가 형성해 놓은 세계라는 허구에 살고 있다. 플라톤의 비유를 들면 범부의 삶은 동굴 속에 어문거리는 그림자일 뿐이다. 노파는 묻는다. "그런 비실재의 환각 너머에 진정한 실재는 어디 있는가. 네가 연구한 <금강경>은 그 세계(空)의 비밀을 알려 주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진정 체득하고 있느냐?"

배움의 세계는 얼마나 허망한가. 실제와 마주하지 않고 관념과 논리로 얽어놓은 세계는 얼마나 허물어지기 쉽고 취약한가. 학자들은 자신의 머리로 구축한 세계가 얻어들은 잡동사니이며, 그것은



할 수 없는데 있다. 헤라클레이토스를 빌리지 않더라도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한다(판타 레이). 한 시도 고정적인 것은 없다. 지금의 마음을 파지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기억으로 남은, 혹은 대상화된 마음은 살아 있는 현재의 마음이 아니다. 새로운 물이 현재의

자리를 잠시 차지했다가 다시 과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염염상속(念念相續)밖에 없어 보인다. 불교는 말한다. 불변하는 것, 영속하는 것, 진정 자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다섯 더미(五蘊)가 가상으로 얽어 놓은 자아라는 환각(maya), 그리고 그 자아가 형성해 놓은 세계라는 허구에 살고 있다. 플라톤의 비유를 들면 범부의 삶은 동굴 속에 어문거리는 그림자일 뿐이다. 노파는 묻는다. "그런 비실재의 환각 너머에 진정한 실재는 어디 있는가. 네가 연구한 <금강경>은 그 세계(空)의 비밀을 알려 주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진정 체득하고 있느냐?"

배움의 세계는 얼마나 허망한가. 실제와 마주하지 않고 관념과 논리로 얽어놓은 세계는 얼마나 허물어지기 쉽고 취약한가. 학자들은 자신의 머리로 구축한 세계가 얻어들은 잡동사니이며, 그것은

바른생각 열린 마음에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흔히 삶은 본래부터 아름다움, 비참함, 외로움, 슬픔 등 슬픈 감정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행복은 우리의 주변에서 시작되는가?

부처님께서는 삶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가치를 볼 수 있다면 행복이란 의무 환경에서 오기 보다는 마음으로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어떤 곤경에 처해 있더라도 마음을 열고 깨끗이 하고 서로를 이해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사유(正思惟)는 이같은 마음의 도리에서 시작한다. <법구경>은 이렇게 시작한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主)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우리는 마음을 통해 세상을 만든다. 불순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리라, 수레를 끄는 황소 뒤에 바퀴가 따라오듯이.

이 구절에는 정사유의 뜻이 담겨져 있다. 바로 열림과 수용이 그것이다. 우리는 명상을 시작할 때, 명상이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5

정사유 ①

어떤 길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다. 사람들은 "마음이 평화롭고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명상을 한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 버리기 위해", "즐거움 마음을 갖

"명상의 결과 기대 말고 현재의 자기를 발견하라 수행의 가치를 알게된다"

기 위해" 등 특별한 이유를 달고 명상수행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요행(僥倖)이 생긴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요행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는가? 명상에서 요행을 찾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명상은 이제 단순히 숨고르는 일이 되고, 권태와 실망이 뒤따라 온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명상을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한다.

"진실을 말하라!", "사유(思惟)여! 계속해서 일어나지 말라" 등을 읊조리며 명상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하자.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만한 도움이 되었는가? 아주 조금일 뿐이다.

방송에서 빠질 수 없는 광고와 마찬가지로. 어떤 방송을 한창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을 때 광고가 끼어들면,

"광고없이 방송했으면"하고 짜증내기 쉽다. 그래 봐야 광고는 계속된다. 열린 마음은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길..." 등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자신의 가치를 보고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은 부끄럽고 당혹스러운 일이다. "열심히 정진했다면 생각들이 맑아지고, 고귀한 상품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세밀히 마음의 소리를 듣고 타인에게 숨기고 있는 것들을 꼼꼼히 세겨야 한다. 욕망·행복 등 마음의 움직임 하나 하나를 놓치지 말고, 그런 감정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때 마음의 움직임을 충족시키는 한낱 술(術)보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배우는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만 마음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무를 키울 때, 먼저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쫓아 주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나무는 저절로 자라난다. 하지만 나무가 얼마만큼 빨리 자라날지는 우리의 소관(所管)이 아니다.

우리는 이같은 명상수행에서 고귀한 정신적 부(富)와 소중한 가치를 배울 수 있다.

명상수행의 시작 단계에서는 참을성과 꾸준함이 필요하지만 얼마 지나면 신심과 확신이 생긴다. 그러되면 우리는 수행의 가치를 알게되고 수행이 하고 싶어진다. 즉 사람들과 어울려 떠돌기보다는 조용한 곳에 혼자 있고 싶어지면서 정진과 자기성찰을 위해 따로 시간을 가지고 싶어한다.

기본에서부터 한걸음 한걸음씩 수행해 나야 한다.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리면서 수행해야 한다.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오"

떡파는 노파 질문에 덕산스님 말문막혀

다. 제대로 대답하면 떡과 만두를 공짜로 드리겠소. 대답이 적절치 못하면 안됐지만 어디든 가서 허기를 달래시오." 덕산은 재밌고도 여겨 그러마고 응대했다. "금강경"에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고 했는데 스님은 대체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려 하시오." 이 말에 덕산의 말문이 터져 막혔다.

점심(點心)이란 이름 그대로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말이다. 간단한 식사를 그리 말했다. 노파는 배고픔을 느끼고 그것을 달래는 마음의 실체가 어디 있는나고 묻고 있다. <금강경>의 인용은 의미심장하다. 과거의 마음은 물같이 흘러갔다. 아프고 저리던 혹은 몸서리치던 그때, 기쁨에 겨워 혹은 근심에 싸여, 혹은 지겹고 권태롭던 그때의 마음도 물같이 흘러갔다. 다만 그 흔적과 상처만이 기억으로 남아 아득한 참고에서 인연따라 떠오른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누가 미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대와 예견 혹은 공포의 얼굴로 현재를 간섭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그것을 미래의 마음이라 할 수는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지금 여기 현재의 마음이다. 문제는 이 현재의 마음 또한 피지

실제로부터 소외된 허구임을 경소에는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그 간극이 비수처럼 자신을 찌르는 때가 온다. 삶의 생생한 현실에 부닥치거나 실존적 한계상황에 다다를 때 그는 문득 새롭고 낯선 세계와 만난다. 선사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학자들의 소외, 그 착각을 깨우치고 이원화의 각질을 깨부수려 한다. 풍안 혹은 화두가 그 장치이다. 때로는 논리의 막다른 골목에 밀어넣거나, 삶의 고통과 환난 속에 내던지며, 때로는 신체의 직접적 감각의 실재를 화들짝 체험하게도 한다.

한 브라만학자에게 스승이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이나." 학자는 책에서 읽은 대로 대답했다. "그것은 최고의 실재, 세계를 형성하고 전변시키고 있는 영원의 브라만입니다." 스승은 그의 머리를 잡아다가 물통 속에 처박았다. 객객거리며 발버둥치던 그를 꺼내 놓고 다시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이나." "예, 그것은 숭실 공기입니다." 그렇다. 우리의 허식과 군살을 다 털어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선사들은 숭실 공기조차 아직 삶의 근본 속살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조차 털어내고 마지막의 '그것'조차 방하(放下)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그곳에 선의 비밀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선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알려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불교와 수학

49

일즉다 다즉일

김용운

지난 호에는 생로병사의 전과정에 서 저마다의 인간이 스스로의 선택 여지가 있음을 말했다.

생물학에서는 '개체발생(個體發生)은 계통발생(系統發生)을 되풀이한다'는 명제가 있다. 처음의 생명의 씨가 원시의 바다에 발생한 이래 작은 세포에서 올챙이와 같은 물고기,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 지금의 인간으로 진화하였으며, 그것은 마치 태아가 어머니 자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되어 가는 과정과도 같다. 전인류의 진화의 역사를 태어난 10개월이라는 밀도 짙은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생명체이며 이들은 이 순간에도 생로병사를 되풀이하면서 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한다. 세포와 인간, 인간과 인류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들 사이의 차원도 다르다. 그러나 자신이 의식하건 말건 '날날이'의 인간은 인류의 진화 발전에 나름대로 책임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54

또한 천문학적인 수의 세포가 우리 몸에 있다. 갓난아이의 세포수는 몸무게 1kg당 약 1조(兆)개, 3kg의 아이라면 3조개의 세포, 체중 50kg의 사람이면 50조의 세포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 '날날이'의 세포는 모두 같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

사람 세포의 핵에 포함되는 유전자의 기본 정보량은 약 30억의 화학 문자로 쓰여져 있다. 이들은 인간의 존재조차 의식하지 않은 채 생로병

호하다. 불교 철학의 무게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저마다 작은 생명체가 고유의 사명과 의미를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은 똑같이 생긴 인간이 둘도 없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유전공학의 발달로 고등 동물의 클론화가 성공해서 복제 양 돌리를 탄생시켰다. 이 기술은 인간의 신체 어느 부분의 세포로부터도 같은 유전자를 뽑아 낼 수 있으며, 따

서 같은 유전자로 된 복제 인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은 그 실현이 종교적,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 유보 상태에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복제 인간의 탄생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에 관련된 증대 관심사는 '같은 세포로 복제된 수많은 인간은 모두 완전히 같을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복제 인간일지라도 절대 같은 인간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인도 밀림에서 발견된 두 명의 늑대 소녀가 있었다. 8살 3살 정도로 짐작되는 마야나 카마로 이름지어진 이들은 기구한 운명으로 유아 때부터 늑대의 굴에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생김새는 분명히 인간인데도 이들의 행동은 완전히 늑대와 같아서 말도 못하고, 일어서서 걷지 않고 늑대처럼 기어다니며,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 음식을 찾아 먹었다. 이 두 소녀는 끝내 인간 사회로 복귀할 수가 없었다. 늑대 사회에서 살면 인간도 늑대처럼 된다는 실례이다.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환경적 요소를 불교에서는 연(緣)이라고 한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소는 '나'의 립림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기의 고리가 인간을 결정한다. 최근의 카오스 이론에서는 단 3개 정도의 요인으로 모델화한 일기예보조차도 그 변화과정을 정확히 추적할 수 없음을 밝혀내고 있다.

하나의 현상을 이루는 수많은 요소 가운데 하찮은 것으로만 보이는 것도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새로이 바뀌어진 환경이 또 한 번 그 인간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세포 하나가 인간의 생명 좌우하듯 개인의 '연기고리' 인류미래에 영향

사람 되풀이한다. 그러나 단 하나의 세포가 병들게 될 때 인간은 중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행동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절망의 위기에 몰아넣기도 한다. '날날이'의 인간은 전인류의 생존 양식에 엄청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처럼 작은 세포 하나가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고, 한 개인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은 "一多, 多一", 즉 '부분이 전체와 같고, 전체가 부분과 같다'는 불교 철학의 국면에서도 유

하다. 불교 철학의 무게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저마다 작은 생명체가 고유의 사명과 의미를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은 똑같이 생긴 인간이 둘도 없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유전공학의 발달로 고등 동물의 클론화가 성공해서 복제 양 돌리를 탄생시켰다. 이 기술은 인간의 신체 어느 부분의 세포로부터도 같은 유전자를 뽑아 낼 수 있으며, 따

서 같은 유전자로 된 복제 인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은 그 실현이 종교적,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 유보 상태에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복제 인간의 탄생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에 관련된 증대 관심사는 '같은 세포로 복제된 수많은 인간은 모두 완전히 같을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복제 인간일지라도 절대 같은 인간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는 말이

정성으로 올린 한잔의 차, 기쁨과 여유를 함께 마십니다



▶ 녹수 정산은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최고의 재료에서 최고의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 정산은 인스턴트 식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성어린 손길에서 맛있는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 정산은 오직 정성으로 차를 다립니다.

“고객 여러분께 깊은 여유와 만족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신행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드립니다.